

#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KOICA의 역할※

정 기 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 I. 서론

개발도상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빈곤이다. 가난한 국가 일수록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불비하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높은 실업과 저소득, 오염된 식수와 위험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기반 시설 개선과 농업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안전한 식수의 공급, 기초 의료서비스의 제공, 산림녹화와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개도국 농촌의 빈곤 해소와 농촌개발을 위한 핵심과제가 된다.

지난 25년간 세계의 빈곤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

장에 힘입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UN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1일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10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 인구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거주하며 그 중 70%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농촌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196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OECD 회원국이 되는 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성공사례다. 특히 한국이 1970년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은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지

※ 본고는 2006. 4.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하에 개최된 “농업분야 국제협력의 과제와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걸어 온 농촌개발 경험, 특히 새마을운동은 국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평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을 빌어 박정희 대통령이 창안한 국민운동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력을 빌어 강제적으로 국민을 동원시킨 운동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이고, 둘째는 가난을 털어 버리고 조국을 잘사는 근대적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국민운동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성공적으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국민운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아직도 국내 학자들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1970년대의 새마을정신은 1980년대 이후 변질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그 명맥마저 끊어질 위기를 당했고 최근에 시민운동으로 재탄생했지만 지역사회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본래의 새마을정신이 손상당한 채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새마을운동은 유신의 잔재로, 군사 독재정권시대에 있었던 국민동원 운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는 대조적이다. UN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1970년대까지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근대적 국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한 지역개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UNESCAP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동남아시아 최빈국들이 당면한 빈곤을 탈피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시아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UNESCAP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파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KOICA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 베트남에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농촌 새마을운동 방식이 베트남 농촌이 당면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개발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2007년부터 5개년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베트남 새농촌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05년 10월 11일, 중국 공산당 제16차 중앙위원회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운동을 중국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신농촌건설계획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KOICA가 실시하는 대개도국 공적 원조사업에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이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농업 생산성을 높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고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빈곤의 늪에서 탈피했다.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1970년대에 식량부족과 빈곤의 늪을 극복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왜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유신과 독재의 잔재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의 농촌개발, 특히 새마을운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일까?

## II. 왜 새마을운동인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도국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와 빈곤을 유발시키는 원인과 환경은 1960-70년대의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즉, 1960-70년대의 한국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농촌지역의 인프라가 불비하여 농업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농촌주택은 생활하기에 불편하였으며 화장실은 불결하고 식수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산에 나무가 없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와 농업생산성은 지극히 낮았다. 1961년도의 한국은 국민 1인당 GNP가 8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 1. 주민 참여에 의한 농촌 생산기반 구축

1970년도에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불과 2~3년의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추진된 새마을운동에 총 5조 2,58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부가 51%를, 주민이 49%를 투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내무부 1982).

개발도상국가의 농촌개발은 그 재원을 거의 정부나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총 투자 재원의 49%를 주민이 부담하였고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개도국이 당면한 식량문제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농촌도로 개선, 용수개발과 소규모 댐 축조, 수리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경지정리 등은 모두 농업생산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세계은행이나 선진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여 농촌 생산기반 정비에 투자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재정력이 취약한 국가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농촌 주민들이 협동과 자조정신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식량문제와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 2. 성공적인 빈곤 퇴치

한국의 경우, 1982년까지 새마을운동에 투자된 자원 중 44.0%가 소득 증대 분야에, 29.0%가 복지환경 분야에, 21.0%가 생산기반 분야에, 4.0%가 정신계발 분야에 투자되었다. 1971년도에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8.8%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2년도에는 103%로 향상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67년도에 34%에 달했던 농촌지역의 절대빈

곤은 1988년도에 6%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ung and Oh, 1994).

개발도상국가들은 UN이 제시한 M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운동은 UN이 제시하는 MDGs 중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촌 주민들이 자조, 자립과 협동정신 하에 농업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중 곡가제 도입, R&D 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 3. 의식 개혁

새마을운동의 결과는 물질 성장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도상국 농촌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마을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한 경우가 흔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거나 선진국의 원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주·자립 정신이 결핍된 경우가 흔하다. 이

러한 자신감의 상실과 대 정부 혹은 대외 원조기관에 대한 의존적인 상태로 서는 자신의 지위 향상이나 마을 지역사회 개발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농촌 주민이 오랫동안 숙명처럼 여겨왔던 빈곤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스스로 노력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자신감이나 협동정신 혹은 자주적인 개발의지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졌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획득되고 강화된다.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spirits)”는 정신적 자신감은 한국사회가 1970년대의 빈곤을 털어버리고 근대적 지역사회로 거듭나게 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4.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열정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개념이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다.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도입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대부분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의 공급(better public service)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들은 공공부문, 특히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제거하고 투명한 행정 관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개발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거버넌스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버넌스는 주민참여(people's participation), 주민들의 의사결정(people's empowerment)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게 되며 보다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를 제공하게 된다.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42달러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소득 240달러 수준의 주민들이 밑으로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방식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농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1971년 당시 한국의 농촌은 지극히 침체 되어 있었으며 농촌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했고 정부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1971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던 농촌 주민들에게 세멘트 350포대와 철근 0.5톤을 제공하여 마을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로부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끌어냈다. 그 결과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participation)가 일어났고, 마을의 일을 주민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 스스로 결정하고(empowerment), 이 결정을 주민 스스로 실행에 옮겼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마을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되, 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 단위 공무원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평가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정부와 주민이 함께 일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으며 지역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추진해 온 과정은 UN등 국제기구가 힘들여 도입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모델과 시스템적으로 유사하다.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5. 농촌 주민들의 관리 능력 향상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지방정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개발해 나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국제기구와 원조기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방법론을 실천하게 된다.

첫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방법론이 적용된다.

둘째,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권한(empowerment)을 갖게 된다.

셋째,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므로 어느 국제기구가 실행하는 과제보다도 주인 의식(project ownership)이 고양된다.

넷째,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속성과 실천과정은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도 프로젝트의 관리능력을 배양(capacity building)시키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할 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마을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형성,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 고양을 가져 오게 되어 주민들의 관리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과 사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지니는 효율적인 농촌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Ⅲ. 새마을운동은 무엇인가?

#### 1. 어떻게 탄생했는가?

한국의 새마을운동 관련 학자들의 다수가 1970년대에 추진된 농촌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이 보여 준 근면, 자조, 협동의 태도가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새마을 교육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한국인들의 근면, 자

조 협동정신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 있는 한국인의 잠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새마을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해외 한국인 사회에서도 협동과 자조, 근면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콜만, 퍼트남 등이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남달리 근면하고 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돕고 협동하는 관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협동과 근면 및 자조 정신이 새마을운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국인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외국의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브란트(Brant 1981)는 한국인들의 협동조직은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예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한국 농촌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계, 품앗이, 두레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적 사회조직은 기본적으로 협동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조직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력한 행정력 동원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하고 행정적 강제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를 납득하고 동의하며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에 한국 사회 전

반에 걸쳐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얻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도력과 행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강제력이 전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박대통령이 경북 청도군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는 주민 스스로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끊어진 다리를 말끔히 새로 건설한 현장을 목격했다. 박대통령은 “이 마을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가꾸고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는데 왜 다른 마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주민 스스로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돌아 왔다. 그 후 그는 이 마을과 같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면 전국의 농촌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을 대상으로 한 한해대책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바 있다(대통령 비서실 1978).

박 대통령이 청도군에서 목격한 마을개발 모형은 한국 사회의 모든 마을들이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던 마을의 자치적 운영 메커니즘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촌 마을사회는 대동계를 조직하여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운영 경비에 충당해 왔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이 경비를 추렴하여 사용해 왔다. 마을 대동계는 마을의 공동제사를 집전하고 마을 도로,

교량, 마을회관 등과 같은 마을의 공동시설을 스스로 건설·관리하였으며 마을의 임금 수준과 기타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는 주민 자치조직이었다.

이 외에도 마을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상사와 자녀의 혼사를 준비하기 위해 혼·상계를 운영해 왔으며 벼농사에 필수적인 관개수리를 위해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마을의 또래집단이나 동창, 동갑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목계, 놀이계 등을 조직·운영해 왔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강조하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은 한국 사회 속에 내재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자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분명히 우리나라 농촌 마을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마을 운영 메커니즘을 현대적인 마을개발 모델로 개조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전국적으로 보급된 한국형 농촌개발 모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이 농촌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의 모델이었다면 주민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주민들이 아주 친숙하게 오랫동안 마을 사회에서 실천해 왔던 자신들의 일이었기에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이 뒷받침되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운동이 손쉽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국의 농촌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던 농촌마을의 운영 메커니즘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여 주민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2. 이론인가? 실천적 운동인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짚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어렵다. 많은 사람이 가장 흔히 정의하는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가난을 벗어나 버리기 위하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근면,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함양하여 새마을지도자와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잘살기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각양각색이다.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도 고치고, 절미 저축운동을 하는 그런 잘살기 운동이라는 식의 대답이 주를 이룬다.

KOICA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과정에 입소하는 외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교육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1970년대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오늘날 발전된 한국의 농촌을 보며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이에 대답해 주는 강

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새마을운동을 자신들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에는 많은 새마을운동 연구소가 있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치적 오염,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과 함께 흔적을 감추었다.

당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새마을운동에 의해 수행된 과제들에 대한 평가, 특히 소득증대, 인프라개발 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의의, 철학적 배경 등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실체를 구명하거나 그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론적 배경 없이 시작되었다. 청도군의 한 마을사례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된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실천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학문적으로 뒷받침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최양부(1978)는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re, Strategy and Performance”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최초로 명명했다. 새마을운동의 구조와 전략을 구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이론화를 위한 최초의 연구로 인정된다.

황인정(1982)은 새마을운동을 한국의 농촌종합개발모델로 보고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개발 이론과 위로부터의 개발 이론을 적절하게 혼합한 농촌개발 모델이며 주민의 조직화, 의식개혁, 자발적 주민 참여, 자본동원,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정기환(1986)은 “A Model Comparison Between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nd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라는 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위의 두 연구가 새마을운동의 성격 구명과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데 기여한 연구라면 정기환의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구조를 모형화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 정기환은 새마을운동의 목적과 목표, 전략, 수단, 조직체계, 지도자, 집행체계, 정부의 지원 방법 등 새마을운동의 방법론을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외국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된 기초적인 연구 수준이다.

박진환(1997)은 “The Saemaul Movement: Korea's Approach to Rural Modernization in 1970s”라는 연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추진 배경과 의의 그리고 1970년대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유용한 소개서로 평가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박진환박사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오고 있지만 이를 이론화하거나 모형화한 연구서는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새마을운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론화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정기환은 KOICA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추진 방법론을 개발하였다(2002, KOICA). 한편 정기환은 베트남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UNESCAP이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에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모델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aemaul Undong, KREI)

를 작성한 바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기환의 연구도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론을 정리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지역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이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IV. 새마을운동의 이론화를 위한 틀

### 1. 새마을운동의 정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주민이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 의식 개혁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 및 공장새마을로 확산되기 이전 단계를 농촌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 전은 농촌의 마을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반면 그 후에는 도시와 직장으로 확산되고 전국의 모든 조직이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농촌새마을운동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으로 통칭되는 것은 특별한 구분이 없는 한 농촌새마을운동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의 지원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이전에는 정부 등 외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새마을운동의 특징은 주민들이 마을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마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원 또는 기술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먼저 새마을운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 참여를 요청했고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하는 위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top)을 택했지만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밑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below)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 2. 새마을운동의 목표

새마을운동의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속의 각 개인들이 잘살고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면 결국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부강한 국가 건설에 있다.

새마을운동이 다른 지역개발운동과 다른 점은 운

동의 첫째 목표가 자신과 가족들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이 동원된다.

#### 가. 소득증대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득증대는 지역개발의 첫 번째 덕목이 된다. 새마을운동에서 소득증대는 농업소득의 증대와 비농업 분야 소득증대로 구분된다. 비농업 분야 소득은 다시 취업 소득과 점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 나. 인프라 개발

마을의 인프라 개발은 농업소득의 증대는 물론 마을 생활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리시설의 건설, 교통 및 운반수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마을 도로 포장이나 확장,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댐의 건설이나 제방 축조,

기계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지정리 등은 모두 인프라 개발에 해당한다.

#### 다. 생활환경개선

마을 생활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주택환경 개선, 특히 부엌과 화장실 건설, 작업 후 땀을 씻을 수 있는 간이 샤워장 건설, 나무나 꽃을 심을 화단 조성, 위생적인 식수 공급 등은 모두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수록 식량생산이 중요하게 되고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샤워장 등은 개발 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것이 보통이다.

#### 라. 근면, 자조, 협동정신 개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면, 자조, 협동은 지역사회가 성립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지역사회 생활을 통해서, 조직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육성된다.

#### 마. 새마을운동의 추진 전략

##### 1) 지역사회 단위의 개발

새마을운동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마을 단위 사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새마을운동은 마

을이라는 작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시작된 지역개발운동이다. 따라서 마을 안의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 가면서 공장 새마을운동, 회사 새마을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경우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지역 단위를 근간으로 하기보다는 회사, 공장 등 사람들의 집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마을간 도로, 하천, 용수개발 등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했던 새마을운동은 동일 도로권, 동일 수계권, 동일 경제권 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광역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개의 마을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는 마을에서 광역화된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 2) 정부 주도의 밑으로부터의 개발

새마을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방법론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below)방식과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발(development from the top) 방식이 혼합된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bottom-up approach under the government initiation)이라는 점이다.

흔히 국제기구 등에서는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가

장 효율적인 지역개발 모델로 상정하고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강조해 왔다. 밑으로부터의 개발은 주민이 개발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화하고 개발 수단을 모색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개발 방법론이라고 평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개발을 스스로 추진할 만큼 자원과 경제적인 능력(economic afford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의사결정 권한(community empowerment)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고 이끌어 갈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스스로 추진해 갈 만큼 지역사회가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협동과 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규범(social norms and regulations)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같은 조건

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밑으로부터의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설사 외부의 지원 하에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외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이 사업은 곧 중단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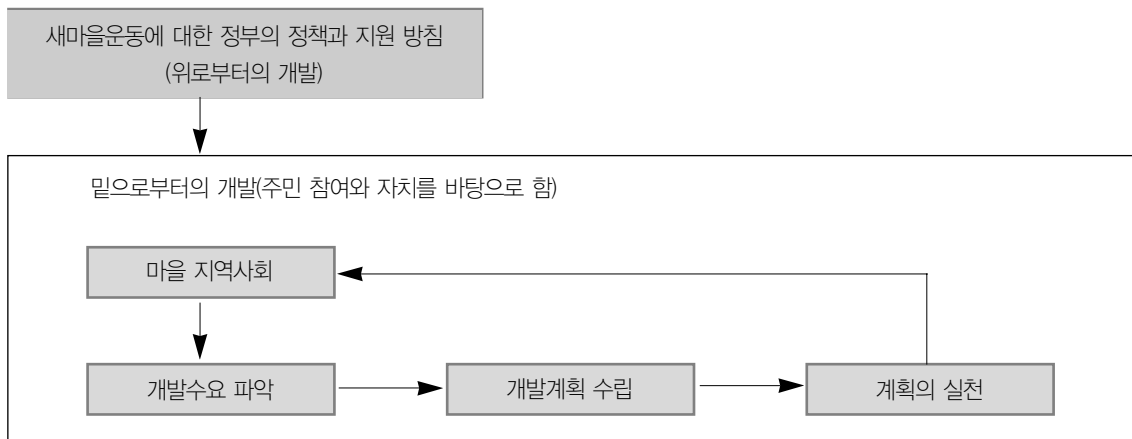
위로부터의 개발은 물적, 인적 자원, 기술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가 개발 초기에 흔히 취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리더십과 주민의 개발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정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형태다. 위로부터의 개발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개발 초기에는 매우 유용한 개발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중앙 정부가 모든 일을 총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지역 나름의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주민의 동기 유발과 활동을 지원하되 기초 지역사회에서의 개발사업은 전적으로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한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위로부터의 개발 방식과 밑으로부터의 개발방식을 적절히 혼용한 방식이다. 즉, 정부가 새마을운동 추진에 필요한 물자와 재원을 지원해주되,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림 1〉 정부 주도의 밑으로부터의 개발 방식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자신들의 마을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 해결 방안을 결정하며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된다.

- ① 주민은 문제의 발굴과 해결 방안의 도출, 의사결정,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 재정확보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금을 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 ③ 이와 같은 전 과정을 통하여 주민은 문제 의식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등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함양해 나가게 된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촌 마을 운영 메커니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방법론은 현대의 어느 지역개발 모델이 지니고 있는 장점보다 우월하다. 새마을운동은 사업을 실천해가면서 개발이론을 체험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발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방법론은 국제기구 등에서 수년간 시도하고 있는 capacity build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empowerment, governance 등의 방법론이 종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마을 운동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면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에서 주민의 자체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3) 종합적 개발 방식

새마을운동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는 농촌 지역 종합개발사업이다.

종합개발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방식이 있다. 수직적 통합은 마을 등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중앙 단위 사업들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방식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중앙 단위 사업과 통합되지 못했을 때, 지역개발사업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마을 지역사회의 개발사업만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공공 서비스 기능 확충, 사회 인프라 개발 등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수평적 통합은 마을 단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개발사업을 마을이라는 지역사회 단위의 한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농가, 잘사는 마을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농촌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인프라 개발, 지역사회 정비, 사회문화 증진, 보건위생 향상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 지역개발운동이라고 정의 된다.

#### ■ 소득증대사업

- 농업 부문 소득개발 사업
- 비농업 부문 소득개발 사업

#### ■ 인프라 개발사업

- 농업생산 기반 정비 등 물리적 인프라 개발 사업
- 도로, 교량 등 사회적 인프라 개발 사업
- 취락구조, 주택 등 개선 사업

#### ■ 지역사회 정비사업

- 마을회관 건립
- 마을 공원 조성 등 마을 경관 및 환경 정비

#### ■ 사회문화 증진사업

- 지역사회 조직 정비, 활성화등 기초적 자치능력 배양
- 지역의 생활 문화 및 축제 활성화
- 청소년층의 문화, 스포츠 활동 지원

#### ■ 주거환경 및 보건 위생 향상사업

- 부엌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 시설 개선

-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하수도 개선

#### 4) 새마을정신 계발 운동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는 운동이 아니다. 본원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협동과 자조적 정신으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물리적 성과보다도 주민이 “우리도 할 수 있다(can do spirits)”는 정신을 함양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관리하는 능력과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마을정신은 정부가 지시하는 것을 주민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함양될 수 없다. 주민 스스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자치적인 해결 방식을 개발하는 협동적이고도 자조적인 사회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여적 개발과 지역사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주민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마을운동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민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주며 이들이 마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우수한 마을을 전략적으로 지원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잘하는 마을을 더 지원해 주는 소위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잘하는 마을이나 못하는 마을을 정부가 똑같이 지원한다면 누가 더 잘하려는 생각을 할 것인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는 잘하는 마을을 포상하거나 더 지원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성과가 낮은 마을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여 잘하는 마을을 벤치마킹하도록 하는데 있다.

#### 6) 앞서 가는 지도자로부터 배우는 전략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전략은 잘하는 마을, 앞서가는 지도자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훈련 과정에서 강사는 유능한 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성공한 마을의 지도자로 구성하였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농민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신뢰도 쌓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의 강의를 장관이나 대학 교수가 듣고 배우도록 하고 같은 방식으로 농촌지도자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우는 방식을 통해서 마을 주민과 정부의 고위 관료, 지식인, 회사 사장과 고용인 등이 상호 학습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 V. 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적용 사례

### 1. 사업의 개요

#### 가.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1 - 2002(2개년)

■ 사업비 : KOICA가 지원하는 무상원조  
300천 달러

■ 사업 지역 : 2개지역 7개 마을

- Thai Nguyen성 Dai Tu군 Khioi Ky면내 6개마을
- Quang Tri성 Vin Linh군 Vinh Thanh면 Hien Lung마을

■ 사업 목표 : 지역 주민의 농업생산량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원 내역

- 전문가 1인 파견 : 2년간 4개월씩 2회 파견
- 연수생 초청 : 24인 초청하여 새마을운동 교육 실시
- 새마을운동 활동 지원 :  
소규모 댐, 관개수로개설, 도로 개량, 마을회관, 주택개량, 생산활동 지원 등
- 기자재 지원 : 마을회관 집기 등
- 봉사단원 파견 : 2인

- 사업 실시 기관
  - 사업 주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사업 자문 : 정기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총괄책임기관 :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시행기관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국립농촌계획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 나. 기대 효과

- 사업대상 지구의 관개시설, 도로 개보수 등을 통한 농업 여건과 인프라 개선
- 농업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 새마을지도자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 자조정신 함양

## 2. 사업 추진 절차

### 가. 사업 대상 지구 선정

#### 나. 대상 지구 실태 및 개발 수요 조사

#### 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과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

- 베트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조사 연구팀 구성
- 새마을운동 방법론 교육 및 부문별 계획 수립 방법 교육

- 분야별로 NIAPP의 전문가와 마을 지도자가 마을의 실태와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 마. 분야별 계획의 통합 조정

- 개발계획의 목표와 전략, 시기 등 협의 조정
- KOICA 지원에 대응한 정부 및 주민의 투자계획 검토

### 바. 개발계획에 대한 베트남의 해당 성 및 현정부의 승인 및 사업 실시

## 3. 사업 추진 실적

### 4. 예산 투입 : 코이키(KhoiKy) 지역의 사업계획과 실적 ※ 표1, 3 참고

#### 가. KOICA 지원

- KOICA는 이 사업에 30만 달러 지원

#### 나. 베트남 측 부담

##### 1) 베트남 측 부담

- 베트남 측은 180천 달러를 투입
- 특히 빈찬 지역의 총 투자액 가운데 KOICA가 47.3%, 지방정부가 32.4%, 주민이 20.3%를 부담 ※ 표 2 참고

〈표 1〉 코이키(Khoi Ky) 지역의 사업 계획과 실적

	계 획 ( A )	실 적 ( B )	A / B ( % )	비 고
마을회관건립2동	2동(230㎡)	2동(270㎡)	100.0(117.0)	
관개수로	2983m	4009m		
소규모 댐건설	35m	-	100.0	사업변경
도로포장	3.0km	500m	16.7	산배정지연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404	318	78.7	
화장실건축	150	152	101.3	
사위장건축	115	153	133.0	
우물 개량	243	185	76.1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애플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난감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6조	6조	100.0	
자전거	6대	6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12대	1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0,000	US\$ 10,000	100.0	

〈표 2〉 사업지구(마을)에 직접 투입된 예산액(2002. 12)

	계획(US\$)				실적(US\$)			
	KOICA	배정부	주민	계	KOICA	배정부	주민	계
코이키	74,249 (39.4)	55,441 (29.4)	58,810 (31.2)	188,500 (100.0)	74,695 (45.8)	36,753 (22.5)	51,648 (310.7)	163,096 (100.0)
빈 찬	59,188 (49.9)	28,553 (24.1)	30,819 (26.0)	118,560 (100.0)	59,796 (39.8)	40,732 (27.1)	49,842 (33.1)	150,370 (100.0)
계	133,437 (43.5)	83,994 (27.4)	89,629 (29.2)	307,060 (100.0)	134,491 (42.9)	77,485 (24.7)	101,490 (32.4)	313,466 (100.0)

〈표 3〉 빈찬(Vinh Tran) 지역의 사업 계획과 실적

	계 획 ( A )	실 적 ( B )	A / B ( % )	비 고
마을회관건립2동	1동(160m <sup>2</sup> )	1동(242m <sup>2</sup> )	100.0(152.5)	
유아원	-	1동		
관개수로	2,983m	2,983m	100.0	사업변경
도로포장	1.52km	2.20km	144.7	산배정지연
주택개량(가구)				
부엌개량	143	134	93.7	
화장실건축	126	128	101.6	
사위장건축	127	126	99.2	
교육시설지원				
컴퓨터	2대	2대	100.0	
앰프	1조	1조	100.0	
유아원 장난감	1조	1조	100.0	
학교 교육자재	1조	1조	100.0	
보건사업지원				
구급약	1조	1조	100.0	
자전거	1대	1대	100.0	
기타 자재				
기타	2대	2대	100.0	
스포츠 기구	1조	1조	100.0	
마을회관 비품	1조	1조	100.0	
농업신용	US\$ 14,000	US\$ 14,000	100.0	

## 5. 사업 성과 평가

### 가. 직접적인 효과

#### 1) 코이키(Khoiky) 지역

- 4,009m의 2차 관개수로 개량을 통하여 48ha의 논과 10ha의 차밭에 관개를 개선하여 만성적인 가뭄을 해소하였고 3기작인 겨울철 옥수수를 20ha 재배하게 되었다. 이 결과 2000년

도 쌀은 ha당 4톤에서 2004년도에는 5.13톤으로 증가되어 12.8%의 증산 효과가 있었고 쌀과 옥수수 및 잡곡 등 총 50 톤의 식량이 증산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농업신용사업은 2002년부터 VND153,000,000를 기금으로 하여 2년간 연리 7.0%의 이자율로 운영하였다<sup>1)</sup>. 2001~2004년간 245농가가 융자의 혜택을 받았고 125호가 축산에, 120호

1) 베트남 은행의 대출 이자는 월 0.98% ~ 1.1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시범사업지구에서 부과하는 연이율 7%는 농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월이자율 0.5%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이자율이다.

는 농작물 생산에 사용하였다. 2004년 12월 결산시 농업신용 기금 총액은 VND164,800,000로 원금의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지구에 318호가 굴뚝을 설치한 부엌을 개량하였고 152호가 화장실을, 153호가 샤워장을 신설하였다.
- 마을간 도로 560m를 폭 3m, 깊이 18cm로 시멘트 포장하여 수송조건을 개량하였다.
- 2개 지역에 135m<sup>2</sup> 규모의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여 회의시설을 확보하고 유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컴퓨터 2대, 기타 1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 2) 빈찬(Vihn Tran) 지역

- 2,983m의 관개수로를 개선하여 50ha의 논에 관개를 개선하여 쌀을 ha당 4.5톤에서 5.6톤으로 24.4% 증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1인당 연간 생산량이 450kg에서 530kg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2,200m의 마을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매년 홍수에 의해 파괴되는 도로의 유실을 방지하고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농업신용사업이 새우 양식장에 집중 투입되어 새우 양식 면적은 2002년도에 4ha에서 2004년도에는 23ha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 새우 양식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60호로서, 사료비를 제외한 ha당 연간 조수입은 VND 6,200,000(약US\$4,133)로 나타나고 있다.
- 1인당 소득액은 2002년도에 VND3,000,000에서 2004년도에는 VND 4,900,000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 증가는 농업 소득 이외에 강변의 모래와 자갈 채취에 의한 소득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2년부터 VND210,000,000의 농업신용기금을 135농가가 연리 6.0%의 이자율로 활용하였다. 농업신용기금의 이용은 주로 새우 양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돈,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자는 매월 26일 상환하고 이자가 상환되면 이를 적립하여 27일에 다른 농가에게 대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 수입금 중 40%는 기금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며 60%는 적립하여 원금에 합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농업신용 기금은 2004년도에 VND231,000,000으로 2002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 242m<sup>2</sup> 규모의 2층 마을회관 겸 학교를 건축하여 마을 주민의 집회장과 사무실, 현대식 초등학교 교실 2개와 현대화된 학습용 비품 구비, 마을 보건요원 사무소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놀이터, 앰프와 스피커, 텔레비전, 책상과 의자, 사무집기 등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 134동의 부엌을 개량하였고 128동의 화장실과 126동의 샤워장을 신설하였다.

- 컴퓨터 2대, 기타 2대, 스포츠 기구 및 앰프, 스피커, 의자 등 마을회관 비품, 간호봉사자를 위한 자전거 1대와 구급약 1조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적, 교육적, 보건위생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 나. 확산 효과

- 타이웁성 코이키에서는 면내 여러 마을에서 자력으로 800호가 부엌을 개량하였고 1200호가 샤워장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500호가 화장실을 개설하였다.
- 광지성에서는 현릉마을을 모델로 한 새마을운동을 성 전체로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KOICA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2001-2002 기간 중에 실시된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5개년간 6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식 새마을운동(Lang Moi)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VI.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협력단의 역할

### 1.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위기

2000년 9월 UN은 밀레니엄 개발 선언을 통해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제시했다. 빈곤과 기아의 해소는 UN이 제시한 8개의 개발 목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UN은 2015년까지 10억명에 달하는 1인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단히 야심찬 개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2004년, 라오스의 브안티안 부시장 Dr. Sillabong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즉각 브안티안시 경제투자국장에게 브안티안시 경제개발10개년 계획에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적용한 브안티안시 빈곤해소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새마을운동 방법론이 라오스가 당면하고 있

는 빈곤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중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신농촌개발운동이나 신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농촌빈곤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농촌개발을 위해서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은 많은 공무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를 희망한다. 2006-07년 동안 많은 중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에는 새마을운동 현장이 사라진지 오래고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실시한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가 개도국이 요청하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려 해도 자격을 갖추 파견할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부상했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존립위기에 처한 것이다.

## 가. 위기의 대내적인 요인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실천적인 농촌개발 모델로 평가하

고 이를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본래 지역개발을 위한 방법론과 정신에서 벗어난 봉사활동 중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새마을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각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잘사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 의식이 실종된 상태다.

한편,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새마을운동을 실패한 국민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미 1980년대에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나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중단되고 그 현장마저도 보여 줄 곳을 찾아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1960-70년대의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이 잘 정비된 선진국 일본은 왜 중앙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실시했던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무라쭈꾸리운동<sup>2)</sup>을 전개하고 있는가?

2) 일본의 무라쭈꾸리운동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을가꾸기운동이다. 무라쭈꾸리 운동은 일본의 중앙정부가 1992년에 도입한 마을가꾸기운동으로 매 10년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모든 시정촌과 마을이 참여하여 실천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식과 내용면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아주 유사하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 실정에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을 달리하며 계속될 수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인프라개발이나 생활환경개선에 치중했다면 200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 가꾸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은 통시대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개발운동이다.

그러나 아무리 새마을운동이 우수한 농촌개발 모델이라고 해도 그 현장이 사라진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식량문제와 기초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한 중진국들이 일본의 1사1촌 운동이나 무라꾸구리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 나. 위기의 대외적인 요인

농촌 빈곤해소와 농촌개발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과제인 만큼 농촌빈곤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모델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신농촌건설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수요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 특히 농촌 빈곤 해소 모델로서 농촌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에서 멈춘 상태에 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참여적 농촌개발, 임파워먼트,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과 농촌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개발 관리능력 제발 등을 활용하여 21세기형 농촌개발과 지역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신농촌건설사업, 베트남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농촌빈곤 해소 모델로서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그 위상을 상실하고 중국의 신농촌건설사업이나 베트남의 새농촌개발이 농촌 빈곤퇴치와 농촌개발을 위한 세계적인 모델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고유 모델로서의 새마을운동이 UN 등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서 관심을 갖는 농촌개발의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마치 수조원에 이르는 세계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고 타사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2.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협력단의 역할

### 가. UN의 MDGs 달성 수단으로 새마을운동 방법론 활용

농촌지역의 빈곤과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구적인 과제인 동시에 UN과 그 회원국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과 전략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새마을운동은 농촌 빈곤과 기아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KOICA는 UN을 통하여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입각한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KOICA가 제공하는 무상원조 사업에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농촌개발 모델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 나.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모델 개발

새마을운동 현장도 없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할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전문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대개도국 전파를 확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여 새마을운동을 KOICA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협력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새마을운동 수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KOICA는 농촌빈곤 해소와 농촌개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이론화 및 추진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할 이론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사업, 경상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등을 21세기형 새마을운동으로 체계화하고 해당도와 협력하여 새마을운동의 현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때, 통일된 이론틀과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KOICA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KOICA가 지원하는 새마을운동은 파견된 전문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을 갖고 전달된다. 심한 경우, 수도작 재배에 의한 소득증대도 새마을운동이고, Cow Bank 사업도 새마을운동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새마을운동 방법론 속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과제들이다. 새마을운동은 방법론이다. 새마을운동에 담을 수 있는 과제는 시대에 따라서 장소와 국가에 따라서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절절치 못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그 안에 담는 사업도 적절히 수행되기 어렵다.

#### 다. 새마을운동 전수사업 추진 방법 개선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훈련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원국이 새마을운동을 도입 실천하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은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발생한 배경과 이론적 틀, 새마을운동을 수원국에서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론, 계획 수립 방법, 실행 방법, 평가 방법,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관리와 사업 관리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이 훈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 목적에 알맞은 교과목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훈련을 담당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협대학이 주관하면 새마을동의 주 내용은 협동조합운동이 되고 농촌진흥청이

담당하면 농촌지도방법론과 농업개발사업이 되기 쉽다. 이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혼란스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이론적 체계도 갖추지 못한, 행정력 동원에 의한 강제적인 운동이라고 잘못 전달되기 쉽다. KOICA가 파견하는 새마을운동 전문가도 통일된 이론과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개발도상국가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방법론에 담는 사업 내용은 각국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계획 수립을 자문하고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활동할 국제적 수준의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 전문가 육성을 KOICA가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교육 및 새마을운동 컨설팅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독립된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기 보다는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 제도를 개선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방법을 개선한다면 후에 새마을운동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 문헌 ]

- 경제기획원,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 내무부, 1983, 「새마을운동」
- 농림부, 1972, 「새마을로 가는 길: 박대통령과 농어촌근대화」
- 농어촌진흥공사, 1995, 「농어촌진흥공사 25년사」
- 대통령비서실, 1978,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
- 브란트, 빈센트, SR., 1975, 「한국의 촌락」, 김관봉 역, 시사문제연구소,
- 브란트, 빈센트, SR., 1981,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소 편,
- 이질현, 로젠, 1981, “새마을운동의 방향”,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 이해 준, 1990, “조선후기 동약?항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항약 연구」, 대우학술총서, 향촌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 정기환, 문순철, 1999, 「농촌인구과소화지역의 유형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도현, 1989, “국가권력의 농민통제와 동원정책: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II」,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
- 황인정, 1983, “198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농촌경제
- Bernard, Jessie, 1982, 「The Sociology of Community」, 안태환(역), 박영사
- Choe Yang-Boo, 1978, 「The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re, Strategy and Performan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 Chung K. W. 1986, “A Model Comparison between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nd the Rural Saemaul Undong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IX, No. 2, Dec.,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Chung K. W. and Oh N, W., 1994, “Rural Poverty in the Republic of Korea”, ?Rural Poverty in Developing Asia?, Ed. Quibria, Asia Development Bank, Manila
- Chung K. W. 2000, “A Pilot Study on the Rural Saemaul Undong in Vietnam: An Introduction to the Vietnamese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KOICA (Unpublished)
- Chung K. W. 2006, “Guidelines for Saemaul Undong: Prepared for UNESCAP project on Replication of Best Practice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Cambodia, Lao PDR and Nep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Unpublished)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Coleman, Jame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3, *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Society*, *Sociological Review*, 84: 1460-74
- Doglass, M, *The Korean Saemaul Undong: Accelerated Rural Development in an Open Economy, Rural Development and the State: Contradictions and Dilemmas in Developing Countries*, Lea and Chaudhri (eds.), London.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ahn, Sung-Joe K. S., 1980, "Political Philosophy of the Saemaul Movement", *Toward a New Community Life*, Lee Man-Gap Ed.,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Jin-Hwan, 1997, *The Saemaul Movement: Korean's Approach to rural Modernization in the 1970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22, Seoul
- Poplin, D. 1972,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 Putnam, robert, 1993a, *Making Democracy: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 SoJin Kwang, 2005, *The Final Evaluation Report for the Replication of Best practice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Cambodia and Lao PDR*, KOICA (Unpublished)
- Uphoff, Norman, 1993,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NGO in Rural Development: Opportunities with Diminishing States and Expanding Markets", *World Development* 21(4): 607-622
- Uphoff, Norma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World Bank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